

# 政治教育의 方向定立

## A Study on the Orientation of Political Education

金 良 培  
(韓國地方行政研究院長)

### <목 차>

- I. 政治教育의 Paradigm
- II. 國民政治教育의 理論的 根據
- III. 外國의 國民政治教育 事例
- IV. 政治教育의 課題와 代案
- V. 結 論

## I. 政治教育의 Paradigm

일반적으로 政治教育(political education, politische Bildung)이란 國民體制의 存續과 發展을 위한 근원적 수단으로서의 教育의 기능을 강조하고 이를 재확인 하려는 뜻에서 사용되는 概念이다.

넓은 의미에서는 政治社會化(political socialization)課程으로서의 人間教育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이렇게 보면 政治教育은 비록 그 형태와 내용은 다르더라도 모든 국가에 존재한다.

한 社會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教育은 그 社會의 價値體系를 이어가기 때문이다.

원래 價値體系 또는 價値觀이란 人間행동의 기준이 되는 요소이므로 모든 성원이 社會的으로 통용되는 올바른 價値觀을 지녀야 社會生活에서 조화를 이룰 수 있으며 社會發

展도 기약된다.

政治活動의 概念은 社會成員의 공동된 價値觀이란 관점에서 검토되어 진다. 따라서 政治教育은 社會成員들이 자신이 속한 政治體制에 대하여 바람직한 태도및 감정을 형성시키고 그 政治體制內에서 담당하는 각자의 역할을 습득하는 教育課程이라고 할 수 있다.<sup>1)</sup>

이러한 教育課程을 거쳐 社會成員들은 자신들이 합의한 지배적인 이데올로기나 행동 규범들을 정당화하여 이를 내면화시키게 된다.

그러므로 政治教育은 다음과 같은 性格을 갖는다.

첫째, 國家政策的 性格이다. 이는 상당히 포괄적이며 종합적인 측면이다. 그러나 우리의 政治教育은 모든 國民들에게 分斷國家의 成員으로서 더 나아가 國際社會에서의 存續과 發展을 위한 成員으로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둘째, 社會的·人間的 性格이다. 우리의 政治教育은 모든 社會成員들이 복잡한 변화를 겪고 있는 現代社會에 올바르게 적응하도록 실시되어야 한다. 즉 모든 社會成員들이 社會的

1) 金京雄, 政治教育論, (서울: 裕豐出版社, 1982), PP.189-190.

존재로서 바람직한 價値觀과 態度를 습득·  
훈련케 하는 내용이 되어야 한다.

### 1. 用語의 使用例

政治教育이라는 用語는 독일에서 주로 使用하지만 영·미에서도 널리 쓰이고 있으나 영·미에서는 폭넓게 政治社會化(political socialization) 또는 政治學習(political learning)의 概念으로 쓰이고 있다.<sup>2)</sup>

우리나라에서는 政治教育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으로서 民主市民教育, 반공교육, 국민윤리교육, 새마을교육, 민방위교육, 통일안보교육, 국민정신교육 등의 用語를 活用하고 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쓰이는 것은 國民政治教育<sup>3)</sup>이라는 用語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우리가 政治教育이라고 부를 수 있는 대상을 '政治'라는 말의 어감이 일반社會에 주는 알레르기성 반응을 고려하여 國民精神教育이나 기타 다른 말로 표현해 왔는데 이런 教育의 고유한 목표와 性格을 바로 파악하는 한편 다른 선진국들의 教育경험과 理論으로부터 배울 것은 배우고 다른 나라에서도 보편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적의한 概念으로서 國民政治教育이라는 用語를 쓰고 있다.

물론 어떤 用語를 使用하든, 또는 教育의 영역을 어떻게 설정하든지 각 나라의 특수성이 고려되어야 하므로 國民政治教育 또는 政治教育 등의 用語는 우리의 현실에서 구분의

실익이 없다고 보여진다.

주의할 것은 政治教育은 政治權力의 획득, 유지 및 행사에 관련되는 정권적 차원의 概念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이다.

이 用語는 어디까지나 教育的 차원에 국한시켜 이해되어야 한다.

### 2. 理念과 領域

政治教育의 理念을 설정하려면 우리의 政治理念과 政治文化에 대한 종합적 분석이 전제되어야 한다.

政治理念과 政治文化를 조화시켜 體系化하는 한편, 教育全段에 대한 포괄적 理念이 定立되어야 구체적인 政治教育의 理念을 도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첫째, 政治教育은 國家나 民族을 우선가치로 하기 때문에 民族主義(nationalism)를 그 理念으로 한다.

민족주의는 하나의 역사적 현상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고유한 전통과 정신문화에 입각한 민족주의적 教育지향은 政治教育의 절실한 課題이다.

둘째, 政治教育은 民主主義(democracy)를 理念으로 한다.

政治教育은 우리 國家·社會의 存續과 發展에 기초가 되는 民主主義 토대위에서 실시되어야 한다. 즉, 政治教育은 어떤 人間을 기르느냐 하는 것이 핵심이 된다. 이렇게 볼 때, 政治教育의 理念으로서 民主主義에 대한 영역은 우리의 實生活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셋째, 政治教育은 福祉主義(welfarism)를 理念으로 한다.

2) Ted Tapper, Political & Stability, (London : Univ. of Sussex, 1976) 참조.

3) 李奎浩, 國民論理教育의 理論과 實際, (서울 : 文祐社, 1981), PP.35-40.

사람은 누구나 정신적·물질적으로 풍요롭게 살기를 원한다. 政治教育은 이러한 福祉主義를 추구하여 모든 成員이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 그 社會에 만족한 귀속감을 갖도록 보장해 주어야 한다.

政治教育의 내용과 영역은 民族主義, 民主主義, 福祉主義 등 그 理念을 토대로 하여 설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우리의 특수한 역사적 배경과 현재의 상황을 고려하여 國家政策的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體系化할 수 있는 政治教育의 내용과 영역에 포함시켜야 할 요소는 다음과 같다.

(1) 歷史와 歷史意識, (2) 國家安保와 國民의 態勢, (3) 政治, (4) 經濟, (5) 社會와 文化, (6) 法律制度, (7) 民族과 統一, (8) 共產主義 批判, (9) 國際關係 등이다.

## II. 國民政治教育의 理論的 根據

한 國家의 體制는 제도화된 구조로서 공동체의 政治的인 生活을 통괄하는 課程의 제반 규칙을 뜻한다.

한 國家의 國民은 지나치게 또는 무비판적으로 애국심을 갖는 경우보다도 소속된 政治體制의 제반규칙을 이해하고 승인하게 될 때 더욱 價値있는 존재가 된다.<sup>4)</sup> 그러므로 政治安定을 위하여 政治生活의 행동양식을 통괄하는 절차를 준수하고 그를 가장 중요시하는 政治的 價値의 조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개인과 政治사이의 관계에서 본질적인 요

소로 등장하는 것은 기존질서를 향한 國民들의 支持이다. 여기서 말하는 지지는 民族國家들이 각종 제도를 마련하고 자신의 목표를 지지구축으로 설정하여 고무·선동하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政治安定은 國民의 지지를 효과적으로 창출해 내는 일련의 社會化過程을 통하여 마련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支持는 國民의 合理的인 判斷의 產物이어야 한다. 따라서 國民들의 判斷能力과 選擇能力을 培養해주는 政府 또는 民間部門의 公式的·非公式的 努力이 先決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努力이 곧 政治教育의 目的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같이 政治教育의 목적은 政治安定과 發展에 있으나, 國家成員의 지지를 형성하는 동기·여건의 도출에 대해서는 理論이 분분하다.<sup>5)</sup>

### 1. 政治社會化

政治社會化라는 관점에서 보면, 成人期동안 (소년기, 청년기초기)의 政治教育은 대체로 특정 政策에 관한 견해를 형성한다든지, 어떤 政治的 사건 및 행동에 가담하거나 다양한 政治指導者들에게 반응을 보이는 따위의 일들로 表出되고, 동시에 내적으로는 體系化·信念化를 이룩한다.

그러나 성인들의 政治教育은 주로 政治世界의 갖가지 술선에서부터 생겨난다.

政治世界에서 새로운 문제가 제기되면 성인들은 자신의 政治的인 인식을 바꾸거나 새

4) 金京雄, 前掲書, P.23.

5) Dean garos, Socialization to Politics, (임병철, 김항원 역, 지구문화사, 1986) pp.60~80

롭게 해야 할 필요가 발생한다.

정당이나 政治集團들도 이에 대응하여 자신들의 프로그램을 변화시키며 경우에 따라서는 협력상태를 바꾸기도 한다.

보편적으로 볼 때 연령과 관계된 政治觀의 發展段階는 성인의 경우 政治社會化의 근본적 뼈대가 될 수 없다. 그러나 성인에게 있어서도 몇가지 명확한 공동패턴(pattern)은 있다.

청년기→장년기→중년기→노년기로 넘어감에 따라 政治觀의 변화는 있기 마련이다. 다만 이러한 변화는 社會的 역할의 변화에서 나타난다.

따라서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政治教育은 어떤 특정의 政治的 이슈(issue)나 사건을 계기로 하여 형성되기도 하고 변화를 보이기도 한다.

성인들의 政治觀의 변화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세가지 여건과 더불어 진행된다.

첫째, 社會的인 차원의 제반 사건이나 변화, 둘째, 특정집단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나 운동, 셋째, 개인의 生活變化 등이다.

이러한 변화와 政治的 事件등에 더욱 관심을 갖게 하기도 하고, 반대로 무관심이나 소외감을 조장하기도 한다. 이같은 선택에 基準과 知識을 제공해주는 것이 성인기 政治教育의 주요 내용을 이룬다.

## 2. 政治教育의 媒體

政治教育이란 用語는 政治的 성향이 전이되는 직접적이고도 계획적인 시도를 말할 때 적용된다.

政治를 教育시키는 일은 가정이나 학교, 각

종 政治機關과 정부기관, 그리고 수많은 집단과 조직체들이 담당한다.

이 政治教育의 유형을 주도하는 것은 社會化를 겪고 있는 개인이라기 보다 社會化를 담당하는 主體(socializer)이다. 대부분의 社會는 政治的 態도와 행태를 직접적으로 教育하기 위한 공식·비공식 채널을 갖고 있다.

앞에서 분석한 대로 體制의 유지는 모든 政治體制가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것이다.

우선 市民은 政治世界에 존재하는 政治的인 권리와 의무를 최소한 알고 있어야 한다.

이렇게 최소한도의 政治教育과 더불어 대부분의 社會는 市民들에게 정부에 관한 정보를 확대함으로써 효과를 거두고 있다.

그러나 역시 중요한 사실은 國家에 대한 충성심과 애국심, 그리고 정치체도를 향한 지지를 가르치는 政治教育이 社會의 發展을 고무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첫째, 학교에서는 공식적으로 커리큘럼(curriculum)속에 의식예절을 포함시켜 이를 教育하고 있다. 예컨대, 國家에 대한 충성을 서약한다든지 국기에 대한 경례, 국경일 기념행사 등을 들 수 있다.

둘째, 가정이 政治教育에 기여하는 바는 여러 측면에서 고찰할 수 있다. 가정이 政治教育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점은 바로 기초적인 政治觀을 습득케 해준다는 사실에서 나타난다. 이 기초적인 政治觀에는 개인이 소속한 體制에 대한 애착심과 政治的 및 기타 社會的인 견해를 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쳐 이것이 구체적인 政治觀을 습득하도록 연관을 맺어준다. 특히 가정은 어린 시절의 政治的 사고와 의식을 개발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셋째, 社會集團이 政治教育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 세가지 상이한 집단간의 차이점을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세가지 집단은 (1)각종 社會的인 모임, (2)1차적 집단, (3)2차적 집단 등인데 이 집단의 유형들은 자체 成員內에서도 다른 관계를 유지하면서 각기 政治社會化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그 영향력의 행사 방향은 서로 다르다.

넷째, 신문, 라디오, TV, 잡지를 비롯한 각종 전달매체들은 여러 형태의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政治定向이 형성되는 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각종 전달매체는 政治的 사건이나 그에 대한 평가를 매일 반복전달하는 결과 우리 生活에서 그 중요성을 매일 더해가고 있다. 이는 전달매체의 기술적인 發展과 가족 및 地域社會의 확대와 같은 전통적 社會構造의 약화에 따른 결과이다. 이에 따라 대중매체(mass media)는 정치성향의 형성자로서 중요함을 증대시키고 있는 것이다.

政治와 커뮤니케이션의 관계를 分析한 研究에 의하면 대중매체의 영향력은 보다 근대화된 社會일수록 의사전달과 政治社會化의 도구로서 더욱 크고 效率的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일반적으로 대중매체는 政治社會化의 제2차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 Ⅲ. 國外的 國民政治教育 事例

政治教育은 나라마다 그 方法과 體系, 비전들이 다양하고 그 명칭도 서로 다르다. 이렇

게 나라마다 차이가 많은 것은 바로 政治教育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것이다.

각 나라마다 서로 다른 역사적 環境은 말할 것도 없고 당면한 現實과 앞으로의 미래상을 특수성이라 볼 수 있는데, 이것은 바로 政治教育의 특수성임과 동시에 教育을 통하여 극복하여야 할 課題이기도 하다.

여기에서 일본, 자유중국, 미국, 독일의 事例만을 검토한다.

#### 1. 日本의 ‘公民教育’

일본의 政治教育은 2차대전 후 신헌법의 기초위에서 새로운 民主國家를 建設·發展시키기 위한 必要性에서 출발하였다.

정치권력층의 입장에서는 ‘승意에 의한 支配’를 실현해 나가기 위해, 國民 대중의 입장에서 國民 스스로가 政治의 담당주체가 되기 위한 ‘政治的 自覺教育’으로 政治教育이 등장하게 되었다.<sup>6)</sup>

일본의 政治教育은 教育基本法에 根據를 두고 있는데, 이 법은 “양식있는 公民으로서 필요한 政治的 교양은 이를 존중해야 한다. 법률에 정하는 학교는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또는 이에 반대하기 위한 政治教育 및 기타의 政治活動을 할 수 없다”(동법 §8)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과 관련하여 政治教育은 그 기본목표를 民主主義國家의 형성자로서 公民을 육성하며, 平和主義, 國民主義, 基本權尊重 등의 헌법원칙을 教育으로 실현하는 데 두고 있다.

6) 大橋謙策, 地域福祉の展開と福祉教育, (東京: 全社院, 1989), PP.23-29.

教育內容은, 人間과 社會分野·家族生活·學校生活·社會生活·國家生活·國際生活 등 5개 分野가 포괄적으로 담겨져 있다.

公民教育의 출발점이자 토대가 되는 것은 實際인 生活指導이다. 이 중에서 직접지도의 방식은 學校生活이며, 간접지도는 학교외의 가정이나 社會生活에서 이루어진다.

일반 社會人들의 公民教育은 학교이외에도 각종 社會團體나 공공시설을 活用하고 있다.

대학 등에서의 특별강의 및 실습을 비롯하여 초중고교에서의 자모학급과 학부모회를 운영하는 것도 그 한 방법이며, 각종 社會團體에서 강연·영화·연극·팸플렛 등으로 教育을 실시하기도 한다.

일본의 政治教育이나 教育民主化는 처음부터 위로부터의 계층적 性格이 강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이제는 개인의 生活態度로서의 民主主義라는 인식으로부터 市民的 상호이해와 협조, 대화와 타협, 다수결원리와 議會民主主義의 규칙(rule)을 습득하면서 生活化해 가고 있으며, 全體主義나 共產主義에 대한 반대논리를 굳건히 다져가고 있다.

## 2. 自由中國의 ‘政治思想教育’

自由中國의 政治思想教育은 國民黨의 중앙통제아래 당산하기구, 行政院 教育部, 신문국과 관영 보도기관, 군총정치작전부 청년반공구국단이 주체가 되어 실시하고 있다.

自由中國의 政治思想教育에 대한 理念的 기초는 國家指導理念 즉 三民主義와 그 내용을 같이 하고 있으며, 이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教育體系는 매우 엄격하고 일사분

란하게 짜여 있다. 教育全段에 대한 통제와 조정은 國民黨 중앙위원회에서 맡고 있으며, 각 기능별로 해당 대상자교육을 분담하고 있다.<sup>7)</sup>

특히 1952.10.31에 창립된 청년반공구국단의 조직 및 역할은 매우 짜임새 있고 적극적이다. 총단본부밑에 5局과 4室 및 통신사, 방송국, 출판사와 학교·社會內에 委員會나 센터를 조직·운영하고 있다. 또한 青年有樂센터에서는 15세 이상, 30세 이하의 청년에게 학예, 기능, 체육, 오락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전체 國民을 대상으로 하는 社會教育은 그 명칭을 補習教育이라고 부르며, 일종의 再教育이나 平生教育으로서 國民黨과 관련기관이 망라하여 실시하고 있다.

政治思想教育的 內容은, 三民主義와 國父思想, 中國史 및 民族觀, 國家觀, 中共의 罪惡상과 共產主義 모순비판, 生活規範 및 기본도덕 등이다. 그 중 특이한 내용으로는 文化作戰이라고 하여 大陸問題研究會에서 여름휴가를 이용, 각급 학생들이나 청년·교사 등을 대상으로 教育을 실시하는 것이다. 自由中國內 4개 지구에 설치되어 있는 이 研究會모임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대륙동포의 生活象과 각종 도서 및 자료, 영화, 슬라이드 등을 이용하여 教育效果를 높이고 있다.

自由中國의 政治思想教育은 政治安定의 유지와 發展을 위한 國民的 통합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 3. 美國의 ‘市民教育’

7) 臺灣省, 臺灣省情報, (臺灣: 臺灣省公報處, 1989) 참조.

美國의 政治教育에 대한 國家社會的 요청은 市民教育(teaching of citizenship)이나 社會教育(social education)이란 형태로 수행되고 있다.<sup>8)</sup>

美國에 있어서 政治教育에 대한 관심은, 특히 1960년대 이래 政治社會化研究라는 학문적 차원에서 제기되었다.

政治社會化에 대한 관계학자들의 활발한 研究成果는 바로 市民教育의 效率性을 높히는 데 크게 공헌한 바 있다.

美國學界의 政治社會化 研究는 기존의 政治文化를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물려주고 내면화시킬 수 있느냐 하는 데 초점이 모아져 이를 위한 방법과 過程의 문제를 탐구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美國에서는 國家水準에서의 政治教育目標가 정립된 것은 없으나, 美國教育政策協會(U. S. Educational Policies Commission)가 제시한 教育目標는, 자아실현, 人間關係의 완성, 경제적 능력배양, 市民的 자질함양 등에 두고 있다.

美國의 市民教育의 내용은, (1)공공질서와 國家政策에 대한 지식, (2)公共政策을 수립하고 수정할 수 있는 능력과 기술, (3)효율적인 참여에 필요한 지식과 규범, (4)타인의 기회와 권리를 존중하는 행동규범과 지식, (5)經濟·社會 生活에서의 책임의식과 자주정신의 고취, (6)國際關係의 이해 및 이타정신과 창조적 애국심 등 6개분야를 포괄하고 있다.

美國의 社會教育方法은, 특정한 價値觀에

대한 복종과 동조를 유도하기 보다 다양한 社會的 價値 중에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分辨력을 육성하는 데 중점이 두어진다.

따라서 被教育者의 독자성·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는 입장에서 자유토론 등 참여교육 방식을 중시하고 있다.

이 방식이 日常生活를 통한 체득과 습성화에 쉽사리 연결되어 질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 4. 獨逸의 '政治教育'

獨逸의 政治教育은 특정 理念을 주입하는 것보다도 民主主義를 위한 政治的 제도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sup>9)</sup>

國民들에게 유럽식 價値觀과 民主政治意識을 심어 주어 자발적인 판단 및 능력을 강화하는 데 目標를 두고 있다.

원래 獨逸의 政治教育은 나찌즘(nazism)의 오염을 극복하고 共產主義의 도전에 대비하는 思想教育으로 출발하였다.

1952년 내무성장관령으로 '향토봉사를 위한 연방본부'를 개설하고, 이를 1963년에 '聯邦政治教育本部(Bu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로 개칭하였으며, 1966.9 '聯邦政治教育法'을 제정·시행해 오다가 統獨 후에도 이를 답습하고 있다고 한다.

教育體系는 본(Bonn)에 위치하고 있는 연방정치교육본부에서 총괄하여 담당하고 있는데, 이 教育本部는 내무성장관의 산하에 있다.

9) 金京雄, "西獨의 政治教育機構와 關係法令", 前掲書, PP.217-253.

8) 金京雄, 前掲書, P.164.

教育內容은 각 부문에 걸쳐 상당히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는데, 주목할만한 내용은 獨逸이 당면하고 있는 모든 현안문제에 대한 갈등을 극복하는 데 있어 民主主義의 기능과 가능성을 폭넓게 설득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政治分野에서는 民主主義에 대한 각종 혼란은 물론 파시즘이나 共產主義 등 獨裁主義를 비판하는 안목을 길러주고 있으며, 經濟分野에서는 獨逸國民들의 몸에 밴 절약과 저축 정신을 격려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社會分野에서는 유아교육에서 성인교육에 이르기까지 질서와 공공의식을 강조한다.

獨逸의 教育對象別 분류방법을 참고로 살펴보면, 최종소비자(一般市民)와 중개인(계도요원)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있다. 최종소비자는 다시 지지층, 반항층, 무관심층으로 나누어 각기 대상에 맞는 教育效果를 거양하고 있으며 중개인은 政治教育理論家, 教師 등 전문적 중개인과 편집자, 언론인, 방송작가 등 잠재적 중개인으로 구분하고 있다. 중개인들은 一般市民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여론지도층이므로 政治教育이 目標하는 바에 따라 중간역할을 수행한다고 보고 이를 매우 중요시하고 있다.

이러한 獨逸의 政治教育은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한다. 즉, 政治教育을 매체로 한 폭넓은 市民層과의 접촉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대한 협조 및 公共福祉를 위한 자발적 협력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선거참여율이 상승하고 있고, 극단적인 정당에 대해서는 거부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측정되었다고 한다.<sup>10)</sup>

#### IV. 政治教育의 課題와 代案

우리의 政治教育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황적 도전을 극복하고 國家發展的 요청에 부응하는 국민역량을 집결시켜나갈 수 있도록 시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政治的教育을 통한 國民的 統合力의 강화가 先決課題가 된다.

이를 전제로 우리의 政治教育의 課題로 지적될 수 있는 것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 國家社會의 안전과 發展을 위협하는 모든 내외적 상황의 극복이다.

우리 社會의 民主化를 촉진하고 그에 부응할 수 있는 國民的 理念體系가 정착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점, 외래사조에 혼입된 정신문화의 혼돈현상, 그리고 북한의 공산화 위협 및 政治思想의 선전공세가 우리의 대결 의식을 약화시키고 있는데 대한 처방전으로서 政治教育을 제도화하여야 한다.

둘째, 政治教育에 기대하는 國家發展的 요청에 대한 대응이다.

우리의 自由民主理念을 뒷받침하는 政治思想의 역량증대, 사회구조변화에 부응하는 국민정신배양, 國家의 제반기능에 대한 국민적 支持基盤確充, 그리고 統一體制整備 등에 대한 政治教育이 당면과제로 제기되고 있으므로 이의 실현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셋째, 政治教育需要를 감당할 教育體系가 종합적으로 體系化되지 못하고 각급 教育機關이나 行政機關에서 임의적으로 분산하여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실시체계의 경직화를 초래하여 教育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추상적·형

10) 國土統一院, 獨逸統一의 敎訓, (서울: 國土統一院弘報室, 1990) 참조



식적 教育目標나 理念이 제시되어 혼란과 중복을 거듭하고 있다. 그러므로 國家政策的 차원의 綜合體系化가 필요하다.

넷째, 政治教育 이외의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로이지만 學校教育과 社會教育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政治社會化過程의 단절상태를 가져오게 한다. 이는 교육실시의 효과면에서만 보더라도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就學前教育體系와 學校教育, 그리고 대중매체를 활용한 教育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政治教育의 효율성 및 내실화를 기해야 한다.

다섯째, 그동안 우리의 政治教育은 주로 政治體制의 유지(system maintenance)나 옹호(system persistence)에 관심을 기울여 왔기 때문에 一般國民들의 인식은 물론 특히 대학생층에서는 정권과 관련된 教育으로 외면당하는 사태에까지 이르렀다.<sup>11)</sup>

또한 종래의 政治教育은 그 내용에 있어 구심점이 없는 단편적인 전개를 늘어 놓아 상호유관성 및 조화성이 결여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는 무엇보다도 政治教育의 내용을 구체적이면서 객관적으로 확립하고 人間教育的 측면을 소홀히 해 온 점을 보완하여 점진적으로 고쳐나아가야 할 課題이다.

여섯째, 우리의 政治教育은 교화(indoctrination)에 치우치는 경우가 허다하고 보편화되었다고 지적된다.

그런데 이 교화는 教育의 概念과 논리적 갈등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被教育者의 자주

적 사고를 억제하기 때문에 教育方法으로서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평가되고 있다.<sup>12)</sup>

이는 教育目的의 일방적인 주입에만 치중하여 被教育者들이 마지못해 教育에 참여하고 결과적으로 教育에 대한 거부반응을 일으키게 되며, 教育의 내면화를 외면하고 生活教育과 관련된 훈련을 등한시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일방적인 강의식교육 보다는 토론 내지 논쟁형식의 教育方式을 병행·실시해야 한다. 또한 관념적인 理論 위주에서 탈피, 現場教育의 기회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

슬라이드나 비디오를 이용한 視聽覺教育을 적극 개발하고 대중매체를 효과적으로 이용하여야 한다. 아울러 방송통신요원들의 政治教育에 대한 인식도를 높히도록 獨逸의 中介人教育制度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한편 政治教育에 관한 각종 자료를 수집·정리하고 편찬하는 政治教育情報센터의 건립도 고려해야 한다.

이 센터는 政治教育本部內에 설치하여 도서관기능 이외에도 獨逸式의 정기간행물이나, 自由中國式의 일반간행물 발간, 개인과 각종 教育機關, 언론기관 등에 배포하는 기능 등을 담당하게 하여야 할 것이다.

## V. 結 論

政治教育은 國家政策的인 측면과 순수한

11) 김종건, 國民精神教育의 內容과 方法 (서울: 世文堂, 1986), P.103.

12) pincoffs, E.L., "On Avoiding Moral Indoctrinations"; in J.F.Doyle(ed), Educational Judgements, (london: Routledge & Kogan Paul, 1973). 김종건, 前掲書, PP.106-107 재인용.

學問的·理論的인 측면이 조화되어 定着·發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의 고유한 역사 전통과 精神文化, 그리고 현실적인 生活風土에 맞는 教育理念과 내용방법 등을 定立시켜야 한다.

여기에 우리의 특수한 政治現實이 용해되어야 하지만 결코 政權的 次元의 것이어서는 안된다.

政治教育은 결과적으로 政治體制의 安定과

發展을 기한다는 측면이 있으나 政治體制가 政權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國民의 입장에서 본 총체적인 概念으로 이해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政治教育은 그 체계·내용·방법면에서 아직 일천한 상태에 있지만 그만큼 發展의 소지를 많이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우리 社會의 價値體系를 확립하고 生活化하는 방향으로 연구·검토·보완·시행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